

# 구제역 발생 전 예방이 중요! 예방은 차단방역이 필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냉장 및 냉동조건하에서는 오래 보존되고, 50℃ 이상에서는 서서히, 강산(pH 6.0이하) 또는 강알칼리(pH 9.0이상) 조건에서 쉽게 사멸한다.

##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경로?

- 직접전파 :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 등에 의한 전파
- 간접접촉전파 :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전파

- 공기전파 : 발병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공기(바람)가 육지에서는 50 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이웃 농장에 전파

## 구제역예방 축산농가에서 지켜야할 일

- 발생하지 않은 지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농장출입 사람·차량 소독 철저,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출입 금지, 축사 내·외부 정기적으로 소독, 이동제한지역 불법반출가축의 구입금지 및 신고, 농장 내 가축예찰 및 의심증상은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교육·회의·모임 등 각종행사 참여자제
- 이동제한지역 : 방역관 허가 없이 가축입식이나 반출금지, 농장출입구는 1개소로 제한하고 출입통제,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출입차량·장비소독 철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모임 등 출입금지, 방역기관 허가 없이 가축분뇨 등 외부반출 금지, 사육가축에서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기관에 신고

##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발생지역은 매일)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차체·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조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말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한다.
- 구제역발생국가에는 여행을 자제하고,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여행을 한 경우 입국시 신고하고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구제역 바로 알면 축산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

러스는 자연 사멸되며(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불활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쇠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됩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합니다.

- 구제역에 걸린 고기는 시중에 유통이 안되나요? : 물론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축 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예방접종을 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가? :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에게만 발생하며, 사람에게에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이다. 예방접종을 한 가축을 도축하여 고기를 먹을 경우 고기내의 구제역 백신성분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 축산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도축장에서는 질병의 우려만 있어도 도축을 하지 않으며, 도축 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경우는 도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가축은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산도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된다.
- 이와 함께 구제역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

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시중 육류나 유제품에는 구제역바이러스가 없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이므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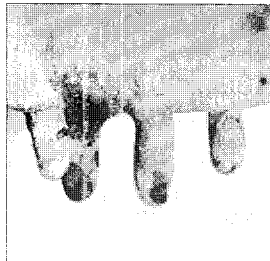
축에게 접종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 구제역 의심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1588-4061/9060 또는 1666-0682로 신고바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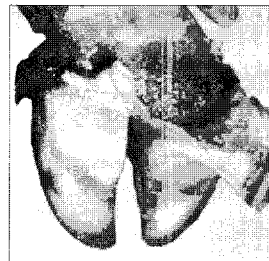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 주요증상



▲ 거품 섞인 침 흘림



▲ 물집이 터진 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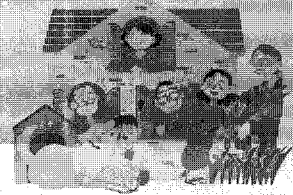


▲ 발굽 탈락 및 궤양



▲ 입술에 물집 및 코에 딱지

## 47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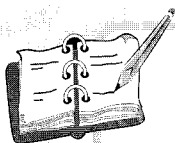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곳곳하게 맥을 이어온 47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794@chol.com,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3-13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협 : 1394-01-000536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